



●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 1951년 23살의 체 게바라는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8개월간의 긴 여행길에 오른다. 1954년 과테말라 혁명에 참가했다가 탈출한 체 게바라는 멕시코로 망명한 후 1955년 카스트로를 만나 쿠바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반군사령관으로서 게릴라 투쟁을 이끈다. 1966년 4월 어느날,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이다. 쿠바에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1967년 10월 8일 부상을 입은 체 게바라는 미국이 지휘하는 볼리비아 반군추격대에 생포돼 총살됐다. 그의 유해는 30년이 지난 1997년 발견돼 쿠바로 돌아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출판계에 불어닥친 열풍 중 하나는 체 게바라(1928~1967) 관련 서적의 출간 러시였다. 현재 국내에 번역된 체 게바라 관련 책만 해도 20권이 넘는다. 특히 장 코르미에 프랑스 파리시앵잡지 기자가 쓴 <체 게바라 평전>은 이미 오래전에 출간됐지만 현재까지도 시내 유명 서적의 베스트 판매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얼마전에는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남미 대륙을 종단하면서 현실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국내에 개봉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젊은 혁명가인 체 게바라에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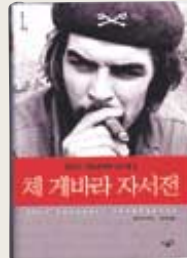
이번에 새로 출간된 <체 게바라 자서전>을 꼼꼼히 읽다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풀린다. 검은 베레모에 손질하지 않은 긴 머리카락, 덥수룩한 턱수염, 정열적인 눈빛, 굳게 다문 입술... 아르헨티나의 촉망받는 의사출신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전세계 전쟁터를 뛰어다닌 1960년대 저항운동의 상징 체 게바라.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우리 세기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칭송했던 체 게바라의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은 자서전이지만 체 게바라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 분신처럼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며 광적인 정

“인간에 대한 사랑 없으면 혁명도 없다오”

도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책은 바로 그가 직접 쓴 여행기, 일기, 에세이, 연설, 문학비평, 논문, 독후감 메모 같은 글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 인터뷰 기사, 직접 찍은 사진 등 그가 남긴 수많은 유필 기록들을 연대기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불꽃같은 혁명가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시집을 끼고 다닌 로맨틱리스트이자 따뜻한 휴머니스트로서 체 게바라의 매력 넘치는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바로 체 게바라의 이런 인간적이고 소박한 모습때문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그의 진솔한 매력은 언젠가 그가 기자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자네가 쓴 기사를 읽었네. 나를 좋게 묘사해 주어서 고맙다고 해야겠군. 그렇지만 너무 좋게 묘사했군.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혁명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손가락에 꽂맞는 장갑을 끼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자네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빼게.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할 수 없는 것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네" 라고 자신을 위해 좋게 기사를 쓴 친구에게 충고의 편지를 보냈다.

혁명동지들로부터 '체(기)를 슬픔 놀람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의'라는 뜻을 지닌 인디언 토속어로 불린 체게바라는 58년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59년 1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입성한다. 쿠바 혁명정부에서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을 역임한 그는 남미 각국을 돌며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외교활동을 벌인 다. 그 뒤 쿠바에서 2인자 자리를 마련없이 버린 그는 65년 내전중이던 콩고로 날아가고 이듬해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혁명을 위한 게릴라전을 감행한다. 그러나 대오를 이탈한 부하의 배신으로 그는 사선(死線)에 내몰린다. 그 최후의 결전에서 17명의 대원들과 함께 미국이 지원하는 327명의 레인저부대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운명의 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적의 총알이 장편지를 꿰뚫는 처절한 교전 끝에 게바라는 결국 체포됐다. 그의 유언은 짧막했다. "카스트로에게 전해주소. 이 실책이 혁명의 종말은 아니라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없이는 혁명도 없다오".



체 게바라 자서전 체 게바라 지음 박치민 옮김 황맨 펴냄 1만3천원



1959년 아르헨티나의 라디오 라바다비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체 게바라(사진 맨 오른쪽).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남자의 후반생 모리야 히로시 지음 | 양역관 옮김 푸른숲 | 1만1천원

한 사람의 인생에서 후반부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중국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스물 두 명을 선정해 그들의 후반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언제 어떤 형태로 삶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책은 스물 두 명의 후반생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말았을 나이에 인생의 꽃을 뒤늦게 피운 사람들, 인생의 절반을 산 다음 번신을 피해 성공한 사람들, 좌절과 굴욕을 딛고 일어서 후반생을 개척한 사람들, 일생 일대의 승부수를 던져 삶을 전환한 사람들, 평생 도전 정신을 불태우며 자신의 뜻을 실현한 사람들, 세속을 멀리하고 공명을 물리친 사람들 등이다.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두었지만 권이 넘어서야 노나라에 등용된 공자같은 이는 '인생을 늦게 꽃피운 사람들'에 속한다. 이렇듯 책사에서 천하의 거부로 이름을 날린 범려, 날카로운 책사에서 후덕한 재상이 된 진평 같은 경우는 '산뜻하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다. 또 공명을 자처해 사형을 면하고 불후의 명작 <사기>를 남

인생 역전 꿈꾸는 40대에게

긴 사마천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들중 특히 돼지를 키우며 마흔이 넘어 공부를 시작해 여든 가까운 나이에 승상이 된 제나라 사람 공손홍의 이야기는 감명깊게 전해진다. 그는 젊은 시절 지역의 옥리였으나 죄를 짓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로 돼지를 길러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마흔이 넘어서부터 '춘추의 집살'을 공부해 조정 박사로 임명됐다. 학문에 뜻을 둔지 20년이 지나서다. 그러나 무제의 마음을 사 낙향하고, 또 다시 인고의 세월을 10여년 보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한 그는 마침내 문관의 최고위직인 승상에 올랐다. 평생 도전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성공할 수 밖에 없다. 동진의 명장 도간이 두드러진 예다. 지방출신으로 중앙관리가 된 도간은 모함을 받아 좌천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미래의 길을 열어간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장의 기와를 날라 지붕에 올렸다.

"왜 일부러 이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라고 부하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젠가 다시 중앙으로 불러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산 그는 이처럼 성실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기에 훗날 '동진의 기둥'이라 불릴 수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황혼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첫세벽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의 지도를 그려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고난과 좌절을 딛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살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김지훈(강원대 중국학과 강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 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